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5호 [주제 제25614호] 주제 106(2017)년 4월 15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태양의 위엄을 받들어 조선
로동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실
현하기 위한 천민민적인 충돌격적의
힘차게 밟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
에 우리 군대와 민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다.

인류의 태양이 솟아오른 영광의 날
과 더불어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에서 뚝기할 전환의 시기가
펼쳐지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
변화도를 따라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떠사가 시작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인민의 꿈과 이상이 눈부신
현실로 꽂혀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온 나라 천만군민은
력질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고대한
덕망으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
를 만방에 펼치시고 후손만대 무궁번
영할 억년기들을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
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전례되었다.

평양체육관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식으로 높이 밟아 모시
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걸이
빛내이자!』,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자애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

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행사 대표들, 당, 무
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
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연고자,
접견자, 혁명렬사유가족,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대회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들,
해외동포들, 반체민족민주전선 평양
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태양절경축행사에 참

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참가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불멸의 강
국건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창조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천만년미
래와 영원한 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에서 휘날리면 주체의 불운기
를 더욱 높이 주께드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결을 위한 전민총
돌격전을 배승의 한길로 이끌어주시
며 반만년민족사에 특기 할 대사면
들로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복종같은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
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3 면 으로 계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36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주체 106(2017)년 4월 14일 평양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몰려줄것을 명령한다.

- | | | | | | | | | | | |
|--------|-----|-----|-----|-----|-----|-----|-----|-----|-----|-----|
| △ 육군대장 | 리영길 | 서홍찬 | | | | | | | | |
| △ 육군상장 | 위성일 | 방두섭 | 리성국 | 양동훈 | 김영복 | 김명남 | 조남진 | 장길상 | 송준길 | 김철규 |
| △ 육군중장 | 정광일 | 김정식 | 리영철 | 김광학 | 마원춘 | | | | | |
| △ 육군소장 | 강 수 | | | | | | | | | |

조선인민군
김정은
최고사령관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주체조선의 국력이 만만에 높이 떨쳐지고 경향각지에서 자주통일열망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민중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 시며 달고 일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계에의 다합원은 혁성축원의 마음들이 민족의 최고설치에 대하여 굽이 흐르는 태양절의 이 아침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녀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군사장과 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세우고자 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삶과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당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주제 1(1912)년 4월 15일 만경대에서 환생하시어 자주시대의 찬란한 태양으로 빛나오드신 위대한 주석님의 80여성장을 하늘한 사상과 비단한 맹도, 고매한 맹도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세우고자 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삶과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당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주제 1(1912)년 4월 15일 만경대에서 환생하시어 자주시대의 찬란한 태양으로 빛나오드신 위대한 주석님의 80여성장을 하늘한 사상과 비단한 맹도, 고매한 맹도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세우고자 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삶과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기적같은 천연기념물로 펼쳐져있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에서 온 미움, 온 거해에 위대한 태양의 꿈에 안겨 자자손손 북학유수를 통일조국의 밝은 평화로 확신있게 네다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수관찰을 애국애족의 송고와 함께 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삶과 최대의 주체혁명위업의 새 시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민족의 자제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우리에게로 삼으시며 혁명평도의 전기간 철저히 구현하시어 세이인으로 부리워하는 민족중심의 사회주의,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의 강국을 세우세우였습니다.

특히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평도의 계승문제를 가장 원색하게 해결하시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이 세대와 자제를 이어 승리의 길로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민족분률과 국토방언의 비극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거

례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노고와 신혈

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애국애족의 대경기를 풍고한 맹도

으로 조국통일운동과 민족대 단결 실현에 힘 있게 헌신했습니다.

진정 인류사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을 창시

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현대조선의 새 역사와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

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영적은 조

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와 더불어 세세년년 무궁도록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우리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어 승

승강구의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대업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단능보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탁현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달력을 끌어나가는 것을 절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회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후에 세운 정신으로써

